

● 도서관 핸드북 (2)

目 錄 規 則

專門委員長 張 一 世

前號에 실린 分類表와 떼어 노을 수 없는 것이 目錄規則이다. 어느 圖書館에서나 반드시 있어야 할 두가지의 必需的인 圖書 정리용 道具(tool)로서는 分類表와 目錄規則이기 때문이다.

目錄規則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圖書의 內容을 가장 요령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規則이다. (※圖書以外的 資料에 대한 目錄規則도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圖書에만 한정하여 이야기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 圖書를 쓴 사람은 누구이며, 書名은 무엇인가? 어데서, 어느 出版社가, 그리고 언제 出版했는가? 그 책은 몇 면이나 되며 그 안에는 그림이나 圖表같은게 있는가? 그 도서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등등을 기록해 줄으로써 그 圖書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그 圖書를 보지 않고서도 위와 같은 內容을 기록한 것을 통하여 그 圖書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目錄規則이다.

사람에 따라 한 圖書를 보는데도 觀點이 다를 것이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圖書를 보는 時期에 따라 觀點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圖書館에서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같은 圖書의 內容을 기록한다 하더라도(이 작업을 「目錄을 作成하다」라고 한다) 千差萬別한 目錄이 될 것이므로, 그 目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目錄을 作成하는 規則, 즉 「目錄規則」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分類表가 역시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것과 같이 目錄規則도 그 당시부터 存在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지만, 확실한 年代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0餘年前에 있었던 아스르 바니팔王室 圖書館이나, 有名한 알렉산드리아 圖書館에도 어떠한 형태의 目錄規則이 있었다는 것만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現代的인 目錄規則로서는 1841년에 印刷 頒布된 大英博物館圖書館 目錄規則(파니저의 主唱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므로 一名 파니저의 目錄規則이라고도 한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圖書館이 所藏했던 많은 圖書에 대한 藏書目錄의 編纂을 위한 것으로서, 統一된 方法에 의하여 目錄을 編纂하

기 위한 目錄規則이다.

이 目錄規則의 가장 큰 功獻은 圖書를 著述한 著者를 目錄作成에 있어서 가장 基本으로 삼았다는 점으로서, 그 이후에 發展된 모든 目錄規則이 이 原則을 따르게 되었다.

그 후 보다 완벽한 目錄規則 制定을 위하여 美國圖書館協會와 英國圖書館協會의 공동 노력에 따라 1908년에 새로운 目錄規則이 만들어졌으며, 1949년에는 이를 改正하여 보다 완벽한 目錄規則으로 發展시켰는데, 이 目錄規則은 著者名과 書名의 記入에 한정된 規則이며 일반적으로 「ALA 目錄規則」으로 불리워졌다.

한편 ALA 目錄規則에서 정한 記入이외의 여러 가지 記述事項에 관한 것은 그 당시까지 美國議會圖書館에서 사용하던 것을 美國圖書館協會가 1949년에 正式으로 채택함으로써 그야말로 완벽한 目錄規則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第2次 世界大戰 이후 世界各國의 文化交流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目錄規則도 世界的으로 統一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1961년에는 國際圖書館協會聯合會의 主權로 파리에서 歷史以來 처음으로 國際目錄原則會議가 開催되어 目錄規則의 大原則이 설정되었고 이 大原則에 따라 各國에서 目錄規則을 制定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특기에 힘입어 우리 나라에서도 1964년에 우리나라 初有의 「韓國目錄規則」이 韓國圖書館協會의 目錄分科委員會에 의하여 制定되었으며, 前記한 ALA의 目錄規則도 파리에서의 大原則에 따라 1966년에 「英美目錄規則」(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이란 이름으로 改正되었다.

이 「英美目錄規則」은 오늘 날 거의 世界的으로 표준이 되는 目錄規則으로 쓰여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目錄規則도 앞으로 보다 완벽한 目錄規則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改正作業에 착수하였다.

圖書館에서는 일반적으로 目錄을 國際規格으로된 카아드에 記載하여 사용한다.